

희귀식물 '금자란' 고향 제주서 복원된다 < 환경 트렌드 < 녹색경제 < 기사본문

그린 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

2013년 7월 9일

국립수목원, 한라산연구소 등 관계기관 참여 9일 금자란 250주 한라산에 식재
야생 적응 후 이전 자생지에 복원 예정



▲ 금자란 = 제공 한라산연구소

국내 멸종위기종이자 동아시아 특산종인 금자란이 자생지인 제주도에서 복원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한라산연구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금자란 250주를 9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천연보호구역인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복원하는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복원하는 금자란은 국립수목원에서 조직배양기법으로 종자 파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대량 증식한 것으로 야생에 적응시킨 후 이전에 자생하던 지역에 복원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립수목원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조성된 대체 서식지의 장기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대량 증식한 금자란을 전국 국립수목원에 분양해 현지외 보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난초과 금자란속에 속하고 주로 비자나무나 상록활엽수에 붙어서 자라는 금자란은 5~6월에 꽃이 핀다.

국내에서는 한라산과 일부 남해지역의 한정된 지역에 드물게 분포하며, 희귀성과 관상 가치가 높아 자생지에서의 남획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으로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식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이다.

한편 이번 금자란의 자생지내 복원은 국립수목원이 수행하고 있는 '희귀·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인프라 구축' 연구의 하나로, ▲2011년 제주도 탐라난 및 완도군 석곡 ▲2012년 울릉도 섬시호과 섬현삼 ▲2013년 기장군 부산꼬리풀 복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news@eco-tv.co.kr



장혜진 기자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